

도심 속 야생동식물 천국...보존해 후손에 물려줘야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 국토부-환경부 힘겨루기에 발목

광주 광산구 장록동 일대 '장록습지'는 국내 도심 속 1호 하천습지 보호지역 지정이 예상되는 곳이다. 광주시는 장록습지를 무등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가 하천인 광주천과 함께 광주를 대표하는 '3대 생태 관광자원 벨트'로 구축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장록습지는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멸종위기 생물종 등 모두 820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도심 속 희귀 생물종의 보고(寶庫)로 꼽힌다는 점에서 하천습지 지정 효과는 예상보다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전제가 있다. 장록습지를 생태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선 전역 국비로 관리되는 국가습지로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올초까지만 해도 연내 지정을 장담했지만, 국가습지 지정 협의부처인 국토부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개발 중심의 업무 스타일인 국토부측 논리는 '하천을 습지로 전환해 보존하면, 하천 정비사업 등이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광주시와 함께 장록습지의 국가 습지 지정을 추진중인 환경부는 다양한 야생생물의 보고인 장록습지를 반드시 보호·관리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국토부의 논리는 개발 독재시대인 1970년대의 언어를 듣는 듯 하다"면서 "2020년 현재 대

광주시 3대 생태 관광자원 추진

천연기념물 포함 820여종 서식

국토부 "홍수대비 공사 못해"

환경부 "시민의 뜻...국가 관리를"

시민단체 "개발 아닌 보존 당언"

한민국은 환경문제 만큼은 개발보다는 보존에 방침이 짝혀 있다. 광주시민 대부분이 찬성한 장록습지 보존을 개발 논리로 막아 서야 되겠느냐"며 분노감을 표출했다.

◇'희귀 생물종 보고(寶庫)...후손에 물려줘야'=장록습지는 영산강의 제1지류인 황룡강 하류 끝 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환경부와 광주시가 국가습지 지정을 추진 중인 장록습지는 도시를 관통하는 호남대 앞~광주공항 합류부 사이 8km 구간이다. 면적은 광산구 어룡동·평동·동곡동·선암동에 이르는 3.06km²다. 주변에는 광주송정역·광주공항·평동산단 등이 있다.

장록습지의 가장 큰 특징은 인구 15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 속 야생동식물의 천국이라는 점이다. 국립습지센터가 2018년 3-12월 장록습지를 정밀조사한 결과, 모두 829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

인됐다. 멸종위기종 1급인 천연기념물 수달과 멸종위기종 2급인 삼·새호리기·황복물떼새 등 멸종위기 생물 4종도 발견됐다.

장록습지가 국가 보호습지로 지정되면 환경부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훼손 지역 복원도 이뤄진다. 습지 보전과 복원사업에는 국비 70%, 탐방로·학습관 조성 등에는 국비 50%가 지원된다. 또 습지의 역사·문화·환경을 알리는 관리센터가 들어서고 생태학습을 위한 탐방로 등도 개설된다.

◇"하천을 습지로 지정하면 홍수대비 공사 등 못해"= 국토부는 환경부가 그동안 낙동강 하구와 담양하천습지, 한강하구, 순천동천하구, 섬진강 침실습지 등 전국 하천 8개소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것 자체가 규정을 어긴 행정행위란 입장이다.

국토부는 환경부가 그동안 습지가 아닌 하천을 습지로 지정하는 등 습지보전법을 어겨왔으며, 협의기관인 국토부와의 협의 절차 없이 지정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한시겸 하천계획 담당은 "현재까지 국내 8곳의 보호습지가 하천을 낀 상태로 지정돼 있는데, 이는 명백히 습지보전법 위반"이라며 "환경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천을 습지보호구역에 포함시켜왔으며, 이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이처럼 하천의 습지보호 지정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국토부 업무 중 하



환경부와 광주시가 대한민국 도심 속 1호 국가습지 지정을 추진중인 '장록습지'는 영산강의 제1지류인 황룡강 하류 끝 자락인 광산구 장록동 일대에 자리잡고 있다. 장록습지는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멸종위기 생물종 등 모두 820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도심 속 희귀 생물종의 보고(寶庫)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나인 하천정비 등 관련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실제 지난해 홍수예방 등을 위해 담양하천습지에 대한 하천정비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국가보호습지로 지정되는 바람에 관련 사업을 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록습지 지정은 광주시민의 뜻·국가 직접 관리해야"=환경부는 국토부의 하천정비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홍수 등에 대비한 하천정비사

업은 습지보전법 행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 장록습지 지정은 광주시민의 압도적 찬성으로 추진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 말 국가습지 지정 찬반을 묻는 광주시민 여론조사(1000명)가 실시됐는데, 85.8%가 습지보전에 찬성표를 던졌다.

환경부는 연내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계획 수립을 거쳐 습지 범위를 결정·고시할 계획이며, 최근 지정계획을 수

립하고 광주시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정·고시를 하게되며, 관련법에 따라 관리·보전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넘어간다. 현재 전국에서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47곳이며, 장록습지 지정시 하천습지로는 5번째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위와 진압, 시민과 군인...색상으로 보여 준 오월 그날



김은영의 '그림 생각'

(313) 그해 오월

"밤으로/가는 길이/얼마나 억울하고/얼마나 원통하여//서편 하늘에/가득히//속기슴을 온통/질분개 펼쳐 내놓은/아, 낫들의 최후/그리고 시작!" 김준태 작 '노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해 보이는 금남로 오월 광장을 걸었다. 5·18 최후 항전지에서 열렸던 40주년 기념식을 보면서 "살다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로부터 40년을 되돌아본 광주사람들이면 누구나 이런 감회에 휩싸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월이면 선명해

지는 금남로 은행나무의 푸르름도 서편 하늘을 물들이는 노을도 그저 무심하게 아름답다 감탄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도도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아직 규명되지 않은 진상은 오월 낫들의 피맺힌 절규와 눈물로 여전히 우리들을 목매게 하기 때문이다.

김정현작가(1945~)의 '그해 5월 광주의 푸르름' (1995년 작)은 오월 그날을 색상의 대비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80년 오월, 이른바 그해 오월, 광주시민들과 진압군이 대치하고 있는 장면을 흑백으로 묘사하고 그 위로 눈이 부시도록 푸른 나무를 오버랩하여 차마 하늘도 내려다보지 못하게 나무로 가렸을 거라는 상상을 하게 한다.

시위와 진압, 시민과 군인, 죽음과 폭력의 광경을 흑색과 생명의 푸른 나무의 선명한 대비로 보여주면서 마치 스크린 속 장면인양 비현실적인 느낌을 더한다. 어느 하늘 아래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시민을 무자비하게 살상할 수 있을 것인가. 현실에서는 일어날 것 같지



김정현 작 '그해 5월 광주의 푸르름'

않은 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해 오월 광주의 비극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1980년부터 '현실과 발언'의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일찍이 민중미술운동을 시작했던 작가는 현재는 그림과 말, 그림과 이야기를 융합시키는 작업에 몰두하면서 끊임없이 현실에 대해 발언해오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이해찬 "5·18 역사왜곡처벌법 연내 국회 통과시켜야"

가짜뉴스·망언 막을 방안 추진

진상규명조사위 권한 확대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5·18 역사왜곡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20대 국회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처리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이 법안을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법적 절차 합의를 기반으로 가짜뉴스와 망언들까지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

였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5·18 관련 법률안 처리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

박광은 최고위원도 "5·18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진실을 고백한다면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가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면서 "진실과 화해의 통로는 '5·18특별법'이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고, 또 그것이 미래를 위한 화해의 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5·18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5·18에 대한 왜곡과 거짓 선동을 처벌하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했던 5·18 왜곡, 훼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도 21대 국회에서 법률적·제도적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던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의 게재, 부마항쟁과 6월항쟁 등 우리 민주역사에 대한 새로운 정황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5·18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 처리와 관련, "어떤 내용인지,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협의를 얻을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정해놓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내 3선 의원들과 티타임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5·18 법안처리가 연내에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연내 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인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M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